

답답한 광주·전남 교육현장... 결국 돈 문제



**12년 된 냉난방기·비 새는 체육관 개선
광주시교육청 6월 추경안에 반영 못해
9일 광주·전남 학교 급식인력 총파업
땀질식 누리예산... 보육대란 다시 올까**



매캐한 석유냄새를 참으며 한겨울, 문을 열고 수업을 받는다면, 비가 새 곳곳에 양동이를 받쳐놓은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급식전담인력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총파업 예고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로 불안한 마음에 안전부절못하는 부모들. 광주·전남 교육 현장이 불안하다.

정부 말대로라면 학생 수도 줄고 교육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올해도 무사히...불안한 학교=광주 인성고는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낼 지 조마조마하다. 지난 2004년 교실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언제 고장날 지 몰라서다. 난방기는 이미 지난해 못쓰게 됐다. 부품이 단종된 상태라 더이상 수리를 받지 못한다.

한창 공부에 집중할 고교 2학년생들은 지난해 겨울철, 석유난로를 쓰면서 매캐한 냄새를 참다못해 문을 열고 수업을 받는 게 하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냉방기도 언제 고장날 지 모른다. 학

교청은 광주시교육청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광주시의회에 상정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올 겨울 또다시 겨겨운 석유냄새를 맡으며 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광주 조대부고는 정마철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비가 새는 체육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지어진 체육관 지붕이 낡아 비만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 양동이를 받쳐야 한다. 수업이라도 있는 날에는 빗물을 받아내는 양동이에서 멀쩡이 떨어진 곳을 이용하고 있다. 조대부고의 체육관 시설 개·보수 비용도 시교육청의 시설개선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했다.

통신고도 비슷하다. 학부모들과의 진학·면담이 이뤄지는 상담실 등의 냉방기가 필요해 관련 예산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용 재원이 열악한 점을 들어 올 추경안에 심하게 남았거나 위험한 학교 시설을 교체주는 예산인 '시설

사업비'를 전년도에 건위 200억원 가량 대폭 줄여 10억원 규모로만 편성했다.

◇자녀 점심 어쩌나...불안한 학부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조)가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당장,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담인력들에 대한 급식비 정수 문제 해결, 명절 상여금 지급, 임·단협 성실 교섭 등의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점심을 걱정해야 한다. 학비노조 광주지부에는 급식전담인력(영양사·조리사·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등 2950명이, 전남은 43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지부도 정기상여금 신설, 정액급식비 월 5만원 인상(현재 8만원), 방학 중 급식준비비(8일 이상 보장) 마련 등 요구안을 내걸고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남지부는 "지난 3일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도교육청이 거부한 만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내놓는다.

◇언제까지 가슴 졸이나...불안한 누리과정=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556억원)만 편성해 광주시의회 정기회(1~13일)에 제출했다. 이달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2차 보육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달 도의회 의결을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이 없다.

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칙 개정안에 '누리과정사업비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예산이 없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땀질식으로 1~2개월 편성하는 게 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 쓰는 등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보육대란이 재차 불가피할 위기는 말이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추적으로 남을 캠퍼스 '농활' 동신대 총학생회(회장 이주현)는 지난 2일 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합평 일대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돕는 등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신대 제공>

조선대 의대, 지역민 건강 살핀 반세기

11일 50주년 기념관 기공식

조선대 의과대학이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사립 의과대학이라는 역사에 걸맞게 글로벌 의료인 양성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는 의과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내놓았다.

조선대 의대는 지난 1996년 12월 22일 지방 최초 사립 의과대학으로 설립됐다. 이듬해 첫 신입생을 받고 197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지난 50년간 양성한 의료인만 5200여명에 달한다.

조선대 의대는 "반세기동안 배출한 의료진들은 광주·전남을 비롯,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진료·연구 활동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며 의학 발전을 이끌 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의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의료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임상연구동, 멀티미디어학습실, 의학 학술정보센터, 임상수기센터 등 글로벌 의료인 육성을 위한 첨단 시설을 갖췄다. 조선대 의대는 세 차례의 대학인증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 인증을 받았다.

조선대는 오는 11일 열리는 50주년 기

념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시대 한국 의학교육을 선도 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 의과대학'으로 도약을 선언한다. 여태껏 의대 발전에 힘쓴 동문들, 이종균 인천 송도병원 이사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에 대해 공로패도 전달한다.

50년 역사가 담긴 50주년 기념관 기공식도 열린다. 지상 3층(연면적 1289.18㎡) 규모로 기존 의대 1·3호관 사이에 들어서는 기념관에는 역사관과 강의실이 마련돼 내년부터 의예과 학생들의 부족한 교육공간으로 이용된다. 의대 동문들은 기념관 조성 및 후배 의료인 양성에 써달라며 10억원의 기금을 의과대학에 내놓았다.

의대는 이날 '미래의사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대희 전국외과대학협의회회장의 특강을 마련, 바람직한 미래 의료인상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12일에는 의대 동창회 주최의 '의랑인의 날' 행사도 열린다.

최상준 조선대 의과대학장은 "조선대 의대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했다"면서 "100주년을 대비,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 의과대학 50주년 기념관 투시도. <조선대 제공>

교육단신

전남대, 내일 개교 64주년

전남대는 오는 8일 오후 4시30분 교내 민주마루에서 6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제 9회 후광학술상을 비롯, '2016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 제 20회 용봉학술상 등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전남대의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행사와 관련, '2016 한 책'도 선정해 발표한다.

동신대, 노동부장관 토크콘서트

동신대는 오는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토크 콘서트를 연다. 이 장관은 이날 하루 바리스타를 맡아 대학생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하고 청년 취업 문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홍보하고 예로사항을 수렴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총장 선거 언제 하나'

전남대, 직선제 여부 계속 미뤄

조선대, 결선투표 미 실시 갈등

전남대·조선대의 올해 신입 총장 선출 일정이 안갯속이다. 전남대는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선출 방식 결정을 여태껏 미루고 있으며 조선대는 결선투표 여부·총장 직선제 투표 참여 방안을 놓고 구성원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입학생 감소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기로 총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점을 감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대의 경우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지난 4월 교수총투표를 거쳐 제안한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여태껏 규정심의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지방문

전남대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 문으로, 지 총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5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었

다. 대학측은 이번 주까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안팎에서는 교육부의 부산대 총장 임명을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을 임명토록 결정할 바 있다.

정부가 사실상 직선제 총장을 인정한 것으로, 지난 1988년 전국 최초로 직선제 투표를 실시한 전남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직선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받게 될 불이익 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선 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대 교수회는 최근 이같은 점을 감안, 총장 선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들어 대학본부의 결정을 촉구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조선대는 이사회가 결정한 ▲결선투표 미실시 ▲교수와 대학 구성원간 참여 비율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사회는 특히 지난달 이사회에서 '과반 투표

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3명이 결선을 치르자'는 교수평의회 입장 대신, '결선투표는 없다'고 못박아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회는 구성원별 참여 비율도 전임교원을 70%로 정하고 직원·학생·동문 등이 나머지 30%를 채우기로 결정, 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선대 안팎에서는 현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23일까지만인데, 교수들의 해외 연수·출장과 방학이 본격화되는 6월 중순 이후로는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총장 선출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다음 이사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6월 총장 선거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새 총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대로 총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원룸 6개,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다용도실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 토 90평, 건 364평
 - 운천역 분거리, 8m도로 접
 - 달방수익 1,000만 예상
- 감정가 12억 5천 - 최저가 5억 5천
-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거용)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감정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
-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

경매교육

경매 아재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원천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670-9800